

<서평>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Robert Koops, Reading: United Bible Societies, 2012)**

김희석\*

## 1. 들어가는 말

본서는 책의 제목과 부제(*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이하 EAIK)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성경에 나타나는 식물들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는 그동안 번역자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핸드북 시리즈(UBS Technical Helps)를 출간해 왔다. 그 예로는 『성서 색인』 (*Bible Index*), 『성서 속의 히브리 시: 이해와 번역을 위한 안내서』 (*Hebrew Poetry in the Bible: A Guide for Understanding and for Translating*) 등이 있었다. 한국어로는 『성서 속의 물건들』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이 출간되어 성경 번역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up>1)</sup> 또한 이 시리즈의 근간 중 하나인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 성경의 생물들』(*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에 대한 서평을 필자가 얼마 전 「성경원문연구」에 기고한 바 있다.<sup>2)</sup> 이 시리즈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간되고 있으며, 본 서평에서 다루고자 하는 EAIK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EAIK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서론인데, 이 책의 기본적인 의도를 서술하고 책을 어떻게 번역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둘째 부분은 성경의 식물들을 6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식물들을 차례로 서술해 나간다. 셋째 부분은 부록인데, 본 책을 이해하는

---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구약학.

1) Ray Pritz, 『성서 속의 물건들』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김창락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2) 김희석, “서평: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성경원문연구」 제 29호 (2011), 206-14.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참고문헌 및 여러 종류의 색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본서는 성경 본문 안에 등장하는 여러 식물들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성경 번역자 및 일반 독자들이 본문을 더 깊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EAIK의 세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평가, 고찰해보도록 하자.

## 2. 주요 내용의 요약 및 평가

### 2.1. 서론

EAIK는 서론을 통하여 성경 번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던진다. 바로 ‘번역 과정에 있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수사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번역자가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번역할 때, 현대의 일반 독자들에게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자들에게는 낯설더라도 원래 본문에 나타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의 갈림길에서 서게 된다. EAIK는 성경에 나타난 식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수사학적 표현들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상세히 다룬다. 현대의 독자들에게 맞춰 번역해야 하는 경우 및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분리해서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EAIK는 ‘역동적/기능적 동등성’(dynamic/functional equivalence)을 번역의 원리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어떤 표현을 번역함에 있어서, 본문이 그 표현을 통하여 의도한 것이 번역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살릴 수 있다면 그대로 번역하고, 원문과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는 본서의 몇몇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첫째, 식물의 명칭(영어) 뒤에는 히브리어/아랍어/그리스어/라틴어 명칭들이 음역(transliteration)되어 있다. 둘째, 그 식물이 성경에 실제로 등장하는 용례들을 표기하였는데, 용례가 20~30개 이상일 때는 + 기호를 삽입하여 표기되지 않는 더 많은 용례가 있음을 보이려 하였다. 셋째, 본문의 절 구분은 영어 성경의 구분을 따랐기에, 히브리어 구약본문이나 칠십인역 원문과는 다를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괄호 안에 따로 표기하였다. 넷째, 히브리어 음역은 BDB(Brown, Driver, and Briggs) 사전을 기초로 하였는데, 학자들에 따라 견

해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외경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어떤 단어가 신약성경과 외경에 동시에 등장할 경우, 신약성경의 용례를 먼저 표기하고, 외경의 용례를 뒤에 표기하였다.

서론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추가해서 소개하자면, 현재까지 성경의 식물에 관해 저술된 여러 서적들을 비교, 평가한 후에 저자 자신의 견해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의 대상으로 자주 인용된 책들의 저자로는 하루베니(Nogah Hareuveni), 헤퍼(F. Nigel Hepper), 몰덴키(H. N. Moldenke and A. L. Moldenke), 조해리(Michael Zohary) 등이 있다.<sup>3)</sup>

## 2.2. 식물들에 대한 설명

EAIK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6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야생나무와 관목(Wild Trees and Shrubs); 재배용 나무와 관목(Domestic Trees and Shrubs); 식용식물(Food Plants, Grown and Gathered); 향과 바르는 기름(Incense and Ointment); 일상생활용 식물(Plants for Everyday Use); 꽃, 가시, 잡초(Flowers, Thorns, and Weeds). 이러한 여섯 범주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한 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본서의 내용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2.2.1. 야생 나무와 관목(Wild Trees and Shrubs)

EAIK는 26가지 종류의 야생 나무와 관목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숲, 강가, 사막 등 모든 야생 지역에 서식하는 종류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아카시아(acacia), 구기자나무(boxthorn), 금작화(broom),<sup>4)</sup> 떨기나무(burning bush), 삼나무(cedar),<sup>5)</sup> 측백나무(cypress),<sup>6)</sup> 흑단나무(ebony), 느릅나무(elm), 전나무(fir), 담쟁이덩굴(ivy), 향나무(juniper), 월계수(laurel), 가막살나무의 관목(laurustinus), 연(lotus plant), 도금양(myrtle),<sup>7)</sup> 떡갈나무(oak),<sup>8)</sup> 협죽도(oleander), 소나무(pine), 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ne), 미루나무(poplar),<sup>9)</sup> 백단향(sandalwood), 때죽나무(styrax), 위성류/능수버들

3) 이 저작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EAIK의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하라.

4)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로렘나무'로도 번역되어 있다.

5)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백향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6)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갓나무'로 번역되어 있다.

7)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화석류나무'로 번역되어 있다.

8)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상수리나무' 혹은 '참나무'로 번역되어 있다.

9)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버드나무'로 번역되어 있다.

(tamarisk), 율나무(terebinth),<sup>10)</sup> 산다락(sandarac/thyine). 버드나무(willow). 여기에 분류된 26가지의 식물 명칭들을 살펴보면,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식물인 경우도 있고, 어떤 한 원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현대의 식물 명칭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

### 2.2.2. 재배용 나무와 관목(Domestic Trees and Shrubs)

이 부분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재배되었던 식물들을 소개한다. EAIK는 이런 재배용 식물 명칭들을 번역함에 있어서, 그 사용되고 있는 문맥이 구체적인 ‘식물’을 언급하기보다는 비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의미를 고려하여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꼭 그 식물 명칭을 번역 대상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번역 대상어를 선택하라는 권고이다. EAIK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재배용 나무와 관목은 모두 13 종류이다: 아몬드(almond), 사과(apple), 구주콩나무(carob),<sup>11)</sup> 유자(citron), 대추야자(date palm), 대추야자(date palm),<sup>12)</sup> 무화과(fig), 뽕나무(mulberry), 올리브나무(olive),<sup>13)</sup> 피스타치오(pistachio), 석류(pomegranate), 쥐방울나무(sycamore fig),<sup>14)</sup> 포도나무(vine), 호두나무(walnut).

### 2.2.3. 식용식물(Food Plants, Grown and Gathered)

EAIK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음식으로 소비되었던 식물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중에는 인간에 의해서 재배되었던 것도 있고, 야생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거둬서 먹은 것도 있었다. EAIK는 이런 식용식물들을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속하는 여러 식물들을 소개한다: 1) 곡물(grains): 보리(barley), 조(millet), 수수(sorghum), 밀(wheat); 2) 엽채류(Leafy Vegetables): 쓴 나물(bitter herbs), 마늘(garlic), 부추(leek), 양파(onion); 3) 콩류(Pulses): 콩(bean), 병아리콩(chickpeas), 렌즈콩(lentils)<sup>15)</sup>; 4) 박(Melons): 메론(muskmelon), 수박(watermelon); 5) 조미료/향신료(Condiments): 케이퍼(caper), 고수(coriander),<sup>16)</sup> 쿠민(cumins),<sup>17)</sup> 딜(dills),<sup>18)</sup> 합분태(dove's dung),

10)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상수리나무’로 번역되어 있다.

11) 한글번역에서는 ‘쥐엄나무’로 번역되었다.

12) 한글번역에서는 주로 ‘종류나무’로 번역되었다.

13) 한글번역에서는 주로 ‘감람나무’로 번역되었다.

14) 이 단어 역시 한글번역에서 ‘뽕나무’로 번역되었다.

15) 한글번역에서는 ‘팥’으로 번역되었다.

16) 한글번역에서는 ‘갓 씨’로 번역되었다.

17) 한글번역에서는 ‘회향’ 혹은 ‘근채’로 번역되었다.

18) 한글번역에서는 ‘회향’으로 번역되었다.

아욱(mallow), 박하(mint), 겨자(mustard), 흑종초(nigella), 갯능쟁이(orache), 루타(rue).<sup>19)</sup>

#### 2.2.4. 향과 연고(Incense and Ointment)

EAIK가 다음으로 다루는 종류는 향이나 기름을 내는 식물들이다. 음식에 첨가하는 조미료로 사용되거나, 의술용으로 쓰이거나, 향수나 분향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 안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소개한다: 1) 향과 향수(Incense and perfume): 침향(agarwood), 창포(calamus), 카시아(cassia), 계피(cinnamon), 회향(fennel), 유향 frankincense), 헤나(henna), 몰약(myrrh), 감송(spikenard); 2) 향유와 바르는 기름(Balm and ointment): 알로에(aloe), 피마자유 나무(castor oil plant), 풍나무(liquidambar), 오평발사뭇(opobalsamum),<sup>20)</sup> 태양장미/록로즈(rock rose), 샤프란(saffron crocus), 트래거캔스(tragacanth).

#### 2.2.5. 일상생활용 식물(Plants for Everyday Use)

이번에는 EAIK는 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식물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각 종류의 식물들을 제시한다. 첫째 종류는 직조(weaving)나 건축에 사용된 식물들인데, 여기에는 부들(cattail), 잔디(grass), 파피루스(papyrus), 갈대(reed), 골풀(rush), 면(cotton), 아마(flax)가 속한다. 둘째 종류는 직조/건축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식물들인데, 호리병박(bottle gourd), 명아주(hammada),<sup>21)</sup> 맨드레이크(mandrake),<sup>22)</sup> 마조람(majoram),<sup>23)</sup> 독당근/독미나리(poison hemlock),<sup>24)</sup> 야생박(wild gourd), 쑥(wormwood)이 이 종류에 속한다.

#### 2.2.6. 꽃, 가시, 잡초(Flowers, Thorns, and Weeds)

마지막 종류로 제시된 것은 꽃으로 분류되는 식물들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등 성경에 등장하는 땅에서 자라나는 꽃은 200~300종이나 되는데, 그중에 70~80여 개는 가시가 있는 종류로 파악된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꽃/가시를 현대의 꽃/가시와 비교하거나 쉽게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19) 한글번역에서는 ‘운향’으로 번역되었다.

20) 특별한 한국어 번역을 찾지 못하여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하였다.

21) 한글번역에서는 ‘갯물’로 번역되어 있다.

22) 한글번역에서는 ‘합환채’로 번역되어 있다.

23) 한글번역에서는 ‘우슬초’로 번역되어 있다.

24) 한글번역에서는 ‘독초’로 번역되어 있다.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다. 저자는 성경에 나타난 꽃과 같은 식물을 우리 현대의 독자가 알고 있는 꽃과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학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살피기 전에는 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 예로, 저자는 ‘샤론의 장미’는 장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EAIK는 이 부분에서는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1) 꽃(Flowers): 아네모네(anemone), 백합(lily), 수선화(narcissus), 장미(rose), 튤립(tulip); 2) 가시, 엉겅퀴, 검은딸기, 들장미(Thorns, thistles, brambles, and briars): 엉겅퀴(thistles), 췘기풀(nettles), 기타 가시 종류의 식물(other thorny plants); 3) 잡초(Weeds).

### 2.2.7. 실례를 통한 분석

이제 EAIK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실례를 들어 살펴봄으로써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보자. 먼저, 각각의 식물들이 설명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거구절(References): 표제가 되는 각 식물 명칭에 대한 히브리어/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원어를 제시하고, 그 원어가 실제로 본문에 등장하는 용례들을 예시한다. 2) 논의(Discussion): 그 식물이 실제로 어떤 식물인지를 설명하는데, 현대의 학명(學名: scientific names)를 들면서 현대의 식물 명칭과 성경시대의 식물 명칭이 일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각 원어들이 여러 성경 번역본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논하며, 학자들 간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는 주요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저자의 견해를 논한다. 3) 서술(Description): 앞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그 식물의 형태, 크기, 분포지역, 특성 등 식물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4) 특별한 함의(Special significance): 성경에서 그 식물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사용된 경우들을 소개한다. 즉 ‘역동적/기능적 동등성’으로 번역하기 위한 고려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사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5) 번역(Translation): 앞의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각 식물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를, 여러 본문의 용례를 들어가며 제안한다.

이제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예는 ‘포도나무’(Vine)이다. 저자는 먼저 포도나무라는 항목에 5가지의 하위 범주가 있음을 제시하고, 각각의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에 대하여 본문의 용례들을 제시한다: ① 포도나무 ② 포도원 ③ 포도열매 ④ 건포도 떡 ⑤ 포도로 만든 음료. 그런 후 저자는 포도나무(학명: *Vitis vinifera*)가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식물임을 지적하고, 이어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포도나무는 고대 그리스의 발

굴 작업에서 포도나무의 씨가 주전 4500년경에 발견되기 시작했고, 가나안 지역에서 주전 2375년경에 재배되었다는 이집트의 기록이 존재하며, 주전 1360년경에는 포도로 만든 농산품이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저자는 포도나무의 생김새 및 분포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도는 농업용, 제의용, 사회적 관계용으로 성경에서 설명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런 후 저자는 포도나무가 가진 함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데, 포도나무, 포도열매, 건포도, 포도주 등은 유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생활 요소였기에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그 비유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했음을 말한다. 창세기 49:11-12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에 포도나무가 나타나고, 이사야 16:10, 아모스 9:13으로 연결되는데, 그 비유적 의미는 복/번영/행복을 상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실인이나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삼갔다는 것은 극단적인 자기 부인을 의미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또한 저자는 미가 4:4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는 표현은 궁극적 만족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신약의 마태복음 26:27-29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의 피가 유월절에 부어진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하는 지적하는 등 저자는 포도나무의 중요한 비유적/신학적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번역의 실제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그 중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설명 하나를 소개해 보자. 바로 히브리어 **יַיִן**에 대한 논의이다.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new wine’ 즉 ‘새 포도주’로 번역하는데, 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sup>25)</sup> **יַיִן**는 그냥 포도주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이 단어에 어떠한 ‘새로움’의 요소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마태복음 9:17, 마가복음 2:22, 누가복음 5:37-38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새 포도주’란 ‘새 부대’와 평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한 표현일 뿐이지, 원래 식물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 포도주’란 없다. 저자는 오히려 이 **יַיִן**가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며, **יַיִן**가 수확물 그 자체를 가리키더라도 그 즙에 알콜 성분이 들어있어서 술에 취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도 함께 지적한다. 결론으로, 저자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 수확물 자체를 가리키는 본문을 번역할 때는 ‘포도나무의 즙’ 정도로 번역하면 되고, 둘째, 특별히 술 취함을 강조하는 본문을 번역할 때는 번역 대상어 중에서 ‘술’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25) 한글번역에서는 대개 ‘새 포도주’ 혹은 ‘새 포도즙’으로 번역하고 있다.

두 번째 실례로, 한글성경에서 주로 ‘합환채’로 번역된 מַאֲדָרָקִים라는 히브리 단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살펴보자. 저자는 먼저 이 단어가 창세기 30:14-16 및 아가 7:13 (히브리 원문에는 아가 7:14)에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이 단어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한다. 어떤 학자들은 맨드레이크(학명 *Mandragora autumnalis* 즉 합환채)라고 보는데, 조해리(Zohary)라는 학자는 맨드레이크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맨드레이크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근거는, 창세기 30장의 스토리를 읽어 보면, מַאֲדָרָקִים이 임신/출산 등 인간의 번성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며, 성경 시대에 임신을 유도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맨드레이크였다는 것이다. 칠십인역과 탈군의 번역자들도 동일한 이해선상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였기도 했다는 점도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저자는 이어서 맨드레이크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몸 형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에서 “사랑의 사과”(love apple)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렇기에 이 단어를 번역할 때는 다음 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 맨드레이크와 유사한 식물 명칭으로 번역한다. 2) 기능적/역동적 동등성의 원리로 번역한다. 즉 각 번역 언어에서 임신을 유도하는 식물로 알려진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한다. 3) ‘사랑의 꽃’과 같은 창조적 표현을 만들어 번역한다. 4) 히브리어 מַאֲדָרָקִים을 그대로 음역하거나, 영어나 불어 같이 잘 알려진 언어의 단어들 (*mandaraki* 혹은 *mandragore*)를 음역하여 사용한다.

### 2.3. 부록

EAIK는 독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부록을 제공한다. 첫째, 선별된 참고문헌 목록(Selected Bibliography)을 제공하는데, 이 책에서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성경원문 및 성경번역본들을 소개하고, 성경의 식물에 대하여 저술된 과학서적의 목록, 성경사전, 본문연구를 위한 도서목록 및 관련 인터넷 페이지 목록까지 제공하고 있다. 둘째, EAIK의 본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어집(glossary)을 통하여 성경 역사, 문화 및 언어에 관련된 전문용어들을 쉽게 풀이한다. 셋째, 여러 가지 색인(index)을 제공한다. 일반 색인, 식물명칭 색인, 식물 학명 색인, 지명 색인, 성경본문 색인 등 다양한 색인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책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3. 평가

이제 EAIK의 장단점을 평가해 보고, 이 책이 한글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EAIK의 장점은 많다. 첫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식물들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식물들을 6개의 범주로 나누고, 그 범주에 따라 각 식물들을 소개하였는데, 총 102개의 표제어 및 총 227개의 관련된 학명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대근동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식물들이 현대의 식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엄밀하게 연구하였는데,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다. 셋째, 각 식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를 표기함으로써, 해당 식물과 성경 원문을 충실히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식물의 명칭을 번역 대상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 것이 적절할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번역 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번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자세한 해설을 덧붙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각 식물에 있어서 상징적, 비유적, 신학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여섯째, 각 식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그 식물들의 실제적인 형태, 분포지역, 특징 등을 해설하였다. 일곱째, 번역에 있어서 각 식물들이 등장하는 성경구절들을 실제로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여덟째, 각 식물들 간에 유사한 점이 있거나 서로 겹치도록 번역될 수 있는 경우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아홉째, 독자들이 성경 식물의 종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색인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EAIK는 서구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영어권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다. 번역본의 예를 들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어 번역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고, 영어/불어/독일어의 음역이나 식물명을 참고하고 있다. 잘못된 번역의 수정 제안 및 설명 역시 서구권 독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식물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한국 독자들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다. 본 서평을 작성하면서 서평자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와 영어번역을 비교할 뿐 아니라, 한글성경에 이런 원어 및 영어번역 표현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이중 삼중으로 비교해 보아야 했다. 아시아권 및 한국어 번역의 고민이 결들여진 핸드북이었으면 더욱 유익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둘째, 저자는 서론에서 ‘기능적/역동적 동등성 번역’을 권장한 바 있는데, 그 번역 원칙이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못했다. 위에서 예로 든 ‘합환채’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해당 식

물의 번역을 제시하면서, 기능적/역동적 동등성 번역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음역하거나 또한 성경 식물의 현대적 식물 명칭으로 번역하는 길을 함께 권하기도 한다. 번역의 원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동시에 이 책의 장점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번역이란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가는 일종의 창조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직역하여 본문의 식물 명칭을 그대로 제시하되, 필요에 따라서 즉 본문의 신학적/비유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능적/역동적 동등성 번역이 유일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셋째, 이 책은 2012년에 출간된 신간인데, 간혹 오타가 보이며, 원어상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 차후에 errata가 보충되어 나올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독자들을 위한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EAIK는 성경 시대의 식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매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신학자, 성경 번역자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라 생각되며, 성경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를 소망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문을 찾아보면서, 고대근동(이스라엘,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는 고대 시대의 중동 지역)의 배경 및 다른 번역본들의 번역상황까지 함께 살필 수 있기에, 많은 이들에게 보다 깊은 성경 이해를 위한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EAIK가 장차 한국어로 번역되어 앞으로의 한국어 성경번역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의 내용 위에, 그동안의 한국어 번역 자료가 추가되고, 또한 한국어 식물 명칭들까지 함께 고려된다면, 한국 독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자료라 될 것이 분명하다. 장차 한국 학자가 이러한 저술을 출간해 줄 것을 또한 소망하는 바이다.

<주요어>(Keywords)

성경에 나타난 식물, 성경번역, 해석, 역동적/기능적 동등성,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번역 핸드북

Plants in the Bible, Bible Translation, Interpretation, Dynamic/functional equivalence, UBS Helps for Translators.

<Abstract>

**Book Review -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Robert Koops, Reading: United Bible Societies, 2012)

Prof. Hee Suk Kim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his monograph,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EAIK hereafter) was 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 as a part of its series, *Helps For Translators*. In EAIK's introduction, the basic issues for reading its main portion are dealt with, in relation with understanding how the plants and trees are classified, and how names of biblical plants/trees are transl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ancient world of Israel and the modern world in which we live. The second part, the major portion of EAIK, explains the plants/trees, which a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wild trees and shrubs; domestic trees and shrubs; food plants (grown and gathered); incense and ointment; plants for everyday use; and flowers, thorns, and weeds. Each category provides a good number of plant/tree names, which are explained in terms of biblical references, discussion, description, special significance, and translation issues. Simply put, EAIK explores what a name has meant in the ANE context, what it means in the Bible, and what it could mean in our contemporary context. The third part presents selected bibliography, glossary, and a series of indices such as general index, plant name index, scientific plant name index, and geographical name index, scripture references, and biblical language index. Beyond doubt, EAIK is an invaluable resource for Bible translators as well as for the serious readers of the Bible. It helps us to better understand the world of plants and trees presented in the Bible. For Korean readers, EAIK should be utilized with an understanding that it has been written from a viewpoint of Western cultures and languages. Accordingly, when used with an attempt that pays attention to the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Western world, EAIK will surely be an asset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This writer urgently recommends that EAIK will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be used by the Bible translators and the members of the church.